

# “대형산불 발생 시 ‘학술림’ 사라질 위기”

### ‘생태계 보고’ 광양 백운산 산불진화임도 개설 시급 임도밀도 1ha당 3.33m 불과... “막대한 피해 우려”

대형산불로 막대한 산림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학술림이 있는 광양 백운산에 대한 산불진화임도 개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대 남부학술림 등에 따르면 백운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1만2000여ha의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조성돼 있다. 이곳은 191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시절부터 연수림으로 운영돼 왔으며 해방 이후는 서울대가 지금까지 산림경영

기술 및 실습, 시험조사 연구 등의 학술림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 뿐만 아니라 국립산림과학원, 충남대, 아주대,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생태계의 시공간적 변화연구, 멸종위기 고산 지역 침엽수종 모니터링, 탄소흡수량 예측 기술연구, 희귀식물 ‘광릉요강꽃’ 자생

지 모니터링, 영구표본구 식생조사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산림식생변화 등을 연구하기 위한 영구표본구만 647개소(방형구 크기 가로 20m, 세로 50m 규모)가 설치돼 있어 수종, 수고, 흉고직경, 치수, 관목 및 초본의 출현, 멸종위기 식물 모니터링, 보호식물 서식지 등 여러 연구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임목 피해 뿐만 아니라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연구자산을 잃게 돼 산불진화임도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도는 평소 시 인입물 반출 등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지만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인력과 장비 투입으로 산불 진화 및 방화선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폭 3m의 일반 인도와 달리 폭 3.5m의 산불진화임도(산불예방임도)를 개설하는 추세다. 서울대 남부학술림도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 학술림 내에 20.8km(폭 3m)의 임도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2021년까지 목표의 37.5%인 7.79km만 개설되고 지역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상태다. 현재 남부학술림의 임도밀도는 1ha당 3.33m로 우리나라 평균 4.1m는 물론 일본(24.1m), 독일(54.8m) 보다 크게 낮아 대형산불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산불 조기진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임도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학술림은 산불이 나면 귀중한 각종 데이터 등이 사라져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학기 서울대 남부학술림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수관하나 지표화는 헬기 등으로 진화하지만 잔해를 끄기 위한 지중화진화는 인력이 동원돼 꺼야 하는데 임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임도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 LOCAL

2025년 4월 3일 목요일

### 영광, 사회복지시설 평가 ‘A’ 노인복지관·지역사회 협력 우수

영광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영광군 노인복지관이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운영성과를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전국의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시설 안전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 평가한다. 영광군 노인복지관은 이번 평가에서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 복지관은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과 건강 증진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무료회원제도 도입과 노인복지관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gp98@gwangnam.co.kr

### 곡성,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4~30일 신상 담례품 증량 혜택

곡성군은 4일부터 30일까지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다이어트’ 담례품 증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억원을 달성하고, 곡성에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벤트를 통해 신상 담례품인 유립상추, 요거트, 현미, 잡곡, abc 주스 등을 봄을 맞아 기부도 하고, 건강에 좋은 담례품도 증량해서 받는 알찬 혜택을 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위기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우리 군 담례품에 만족하는 분들에게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추가 증량해 담례품도 같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방’,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의 지정기부사업을 모집 중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여수 낭도~하화도 여객선 신규 취항 1일 3회 왕복 운항...주말 300명 관광객 유도

여수 낭도와 사도, 추도, 상화도, 하화도를 잇는 새로운 뱃길이 열렸다. 여수시는 태평양해운사의 99급 여객선 ‘대형카훼리3호’가 지난달 29일 낭도~하화도 항로에 신규 취항해 주말 동안 300여명의 관광객이 입도했다고 2일 밝혔다. ‘대형카훼리3호’는 승객 128명과 승용차 11대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으로, 낭도 선착장에서 1일 3회 왕복 운항된다. 그동안 사도는 태평양해운사의 여수~문병 항로를 통해 입도할 수 있었지만 여객선 투수가 낮아 백야도와 사

도 사이 심한 너울성 파고 위험으로 결항이 잦았다. 추도는 정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도선과 사선으로만 입도가 가능했는데, 선착장 공사를 완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게 됐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신규 노선을 추가 운항함으로써 그동안 교통편이 없던 추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당일 섬 여행과 화물 수송도 가능해졌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편의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영광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영광군 노인복지관이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운영성과를 인정받았다.

### 순천, 대안 고등교육기관 ‘생태 칼리지’ 설립

#### 영국 슈마허 칼리지 모델...내년 정식 개교

순천시가 이론·실천적 토대를 마련한 대안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지속 가능한 생태교육 기반이 될 것인 순천 생태 칼리지를 설립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입학설명회, 다음 달 선발을 통해 15명 인박 교육생을 모집해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철학, 사회 과학, 예술, 순례, 공동체 생활 등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수업료와 연구 지원금은 순천시가 부담한다. 생태 칼리지는 영국 대안 고등교육기관

구성은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학·석사 과정을 갖춘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광역 시도에만 시립 또는 도립대학 설립 권한이 있는 현 제도 아래서는 쉽지 않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순천시는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가 생산 시설 유지에 몰두할 때 순천시는 생태 수도를 기치로 내걸고 철새 서식지의 전봇대를 뽑았다”며 “순천만 보존, 정원박람회 개최 등으로 외형을 갖춘 만큼 이제 삶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생태 칼리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광양보건대, 스마트원예과 신설 추진

#### 광양원예농협과 업무협약

교수진을 채용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 농업인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지역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김영배 광양원예농협 조합장은 “지역 농민들은 더 나은 농업을 습득을 위한 배움의 열정이 있지만 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황에 지역의 유일한 대학에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해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

광양보건대학교는 최근 광양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광양원예농협과 대학 스마트원예과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 체결에 따라 광양원예농협은 스마트원예학과에 진학하는 조합원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실습장소와 우수한 강사진 추천 등을 하며, 광양보건대는 우수한

EDEN **경력 30년 노하우!!**

## 이든 하우스 컨테이너

이든하우스컨테이너 검색

나만의 세컨하우스~ 갖고싶다!!

#### 조달형 3자간가등록업체/농공단지직접생산업체

- 농락이동식주택
- 스텔하우스
- 초소·휴먼부스
- 이동식화장실
- 컨테이너 제작·판매·렌탈·중고매입
- 조경시설물(파고라,운동기구,벤치)
- 휴먼지털이(원드건,제작,설치,판매)

본 사/1공장 : 목포시 공단중앙로 30 (농공단지 내) 061) 277-0004  
전시장/2공장 : 목포시 용매동 603번지 061) 261-7400

**(유)이든하우스**